

# 표적을 주시는 이유

출애굽기 10:1-2, 마가복음 8:27-38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표적을 주시는 이유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조금씩 있는데, 그러다가 문제만 생기면 거기에 빠져 버린다. 어떤 사람은 또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크게 실패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복을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있지 않다. 우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진짜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사실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다. 복음에 결론이 났느냐 안 났느냐, 여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자꾸 뭘 달라고만 하니까 종교 수준을 못 넘어서는 것이다. 절간에서 108배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수 있다. 성당에서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응답이 오는 것이 더 손해일 수 있다. 무당에게 기도 기도응답은 받지 않나. 전부 엉뚱한 데에 가져다가 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소원과 방향과 전혀 안 맞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아버지한테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주는 용돈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버지가 주는 유산에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그것 가지고 도박하고 술 먹고 다른 데 써 버리게 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을 데니,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쥐도 짚끔짚끔 주는 것이다.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지, 복음 때문에 오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면 결국 손해 볼다. 이해가 되는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다.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다. 정확한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를 가지라는 것이다.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라. 그러면 모든 문제는 정말 끝이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 1.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진정한 이유

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진짜 이유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음을 알아야 한다.

(1) 주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큰 능력의 역사와 증거를 보여주셨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들린 딸을 고쳐 주셨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 하는 청년도 고쳐주셨다. 그러셨던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또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4천 명을 먹이셨다. 맹인을 고쳐 주셨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2) 그러면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가? 배고픈 것을,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였다는 말이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지만, 그 5천 명은 하루 지나면 금방 또 배가 고프다. 죽은

사람도 주님이 살리셨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다시 죽는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겠는가?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라 나의 구주 그리스도시구나,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말이다. 사건, 기적,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볼 때, 그 속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복음의 핵심을 붙잡아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다’ 하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기도응답은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옛날에 과거를 보는 사람들은 다 사서오경을 전부 외운 사람들인데, 거기에서도 장원급제가 있고 차석이 있고 탈락되는 사람이 있었다. 무슨 차이인가? 말의 뜻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장원급제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는지 이유를 밝혀 보면, 거기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다. 정말 축복받으시기 바란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응답을 받아 봐야 대단한 것이 아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응답은 자연히 오는 것이고, 안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므로 행복한 자 되시기를 축원한다.

①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자꾸 주시는가? 문제가 와야 그제서야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그래야 겨우 주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니까. 문제가 반복되는 수준을 넘어서시기 바란다.

② 눈에 보이는 응답을 넘어서,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라. 작은 것 하나를 두고서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실제로 기도해 보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해 보아야 한다. 나는 훈련받기 위해서 부산 내려가면서 이것을 체험해 보았다. 차를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졸음이 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계속 다섯 시간을 부르면서 간 것이다. 도착해 보니까 집회가 오후부터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태종대 바닷가에 가서 소리질러 보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소원 말하지 않고, 이것만 계속 불러 보았다. 내가 김소월은 아니지만, (웃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나는 구강염이 되게 심했다. 그게 내려가서 위궤양이 되었는데, 십여 년 동안 앓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이 병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 이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아야 한다. 내가 그 병 낫기 위해서 그 이름 부른 것이 아닌데, 병이 싹 나아버리고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 보라. 그것 알게 하려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때 계속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못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것 생기게 하려고 계속 일을 주시는 것이다. 주일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진짜 찬송이 나온다.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할 때까지 한 번 해 보라. 그리고 나면 흔들릴 것이 없다. 틀어질 것이 없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구나 하는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③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정말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 체험을 해 보라. 그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여기에 이르면 영적 서밋이 된다. 영적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이다. 여기로 올라가지 않으면 응답을 받아도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거나 헤매거나 갈등하지 말고 완전한 답,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신다. 문제 생기고, 그때서야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다가 또 교만해서 문제 오는 재앙의 흐름을 하루 속이 끊어 버려라.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했지 않나. 그 교훈을 잊어버리지 마라. 조금 축복을 받으니까 얼마 안 가서 타락해 버린다. 하나님은 보지못해 매를 드시니까 반 죽게 되었다.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 잘 산다. 좋아진다. 그러면 이내 또 가서 우상 섬기고 타락한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반복된다. 이것을 그만두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세계 역사의 교훈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재앙의 흐름과 반복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바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결론을 가지는 것이다. 복음에서 해답을 얻고 복음 때문에 응답을 받으며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는 영적 서밋이 되라.

## 2.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복음의 내용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를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이 가지신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리고 체험하고 응답받아야 하겠다.

(1)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보셨더니, 무슨 대답이 나왔는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 같다고 합니다."

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한 쪽으로만 이해한다. 오해하고 있다.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 기준으로 뭔가 틀을 만들어놓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금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세례요한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 아니면 구제, 복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성전이다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한다.

② 되게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 깨달은 것이다. 교회는 그런 것도 하는 것이지, 그런 곳이 아니다. 구제도 하는 것이 교회지, 구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왜 그런가? 그런 운동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 계속되는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아무리 도와줘도 가문에 반복되는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관을 맡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아 버리면, 우리가 봉사하는 기관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발각 뒤집히고 지역이 변화되어 버린다. 아무리 도와주어도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들의 영적 문제, 영혼의 문제를 터치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것이다. 개인에게 오는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는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어서 속히 넘어서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순수한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넉넉히 체험하고 누리야 한다.

(2)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 나온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시키는 고백이 나왔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시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재앙이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누리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축복받으시기 바란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제대로 붙잡아야 한다.

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이 복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지식인도 무식자도 돈 많은 자도 없는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책임이 있게 되었다. 이것을 천명이라고 한다. 우리 참사랑교회는 천명을 가진 교회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다른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 내가 전달해 주면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진 것이다.

② 이 천명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소명이라고 한다.

③ 그러면 이 때 부터 표적도, 핍박도 넘어질 수 있는 사명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3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에게 주시는 목표,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1)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한 주간동안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란다. 깊은 기도 속으로 한 번 들어가 보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생을 걸면 그것이 사명이다.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구체적인 목표를 발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2)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견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교회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다. 이 시대에 왜 우리교회를 부르시고 총회를 개최하게 하셨는지 발견해야 한다. 기도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이 천명, 사명,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집중해야 하겠다.

2017년은 너무 중요한 해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다. 한국교회의 입장에서는 장로교 총회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101회 총회의 회기를 맞는 해다. 우리 교회에서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때에 우리가 3단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통합종교운동의 흐름을 꺾고, 램넛트들을 실패시키는 재앙의 흐름을 꺾을, 오직 복음운동의 깃발을 선두에서 들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9월 셋째 주의 총회의 의미이다.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핍박도, 응답도 넘어서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는, 영적인 도전을 발견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란다.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승리하는 한 주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기적을 주님은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모든 기적과 역사와 말씀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글을 다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찬송 작가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표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이유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체험하며 누리는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증거와 은총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